

연중 제 6주일

기도서 347 면(A해)

제1독서 : 집 회 15, 15-20

제2독서 : 1 고린 2, 6-10

복 음 : 마 태 5, 17-37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 관 리 국
인쇄처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 련



법(法)은 자유와 권리를 억제하는가?

서 석 기 신부

법은 서로의 자유와 권리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선(線)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약속의 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법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탈선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 법은 고삐요, 속박의 멍에 같이 생각되지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법은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 주는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서에 자유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하느님의 법, 하느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모세를 통하여 인류에 열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서의 말씀 안에서 인간이 올바르게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이 법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탈선자가 될 것입니다. 기차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두줄의 레일에서 탈선한다면 전복되고 맙니다.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하느님의 법에서 탈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서는 죄악이 잉태되어 죽음이 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종교란 좋은 것이요, 선행을 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종교란 생활하는데 많은 속박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심에 무거운 멍에라고 생각하여 막상 종교에 발을 들여 놓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신앙 때문에 할 일을 못한다고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어찌 할 일을 못하고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이야 말할로 더욱 할 일을 잘 하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늘 으면 착실하게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뜻을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정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법을 따르며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부안 성당 주임신부>



국산품 시비

요즈음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귀를 막고 다니는 이들이 있다. 들리는 소리들이 별로 신통하지 않은지 소형 녹음기를 귀에 꽂고 영어 회화나 음악을 듣기에 바쁘다. 그리고 이제는 갖가지 녹음기들이 많이 보급되어 야유회에만 하더라도 필수품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한따하는 이름을 가진 국내 회사에서 만들어낸 녹음기를 대하다보면 짜증이 난다. 테이프를 넣다보면 뚜껑이 잘 안닫히고, 조금 지나면 속도가 느려져 테이프를 망가뜨리기도 한다. 마침 외래품 단속이 한창이니 차체에 국산품에 대한 시비를 좀 해보자.

국산품 애용은 아무리 말해도 흠이 될 것이 없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공직자들과, 특히 고위층에서 수범을 보이는 일도 바람직하다. 하지만 당국에서 주장하는대로 이제 중진급 대열에 끼어 있다면 국산품 애용을 말하기 전에 그 수준에 대한 반성이 앞서야 한다. 조금은 지나 쉼터지 몰라도, 국산품 애용의 강조는 불량 국산품을 만들어내는 악덕 기업가들의 배만 불러주는 꼴도 되기 때문이다. 옛부터 전해오는 말대로 외할머니 떡도 싸야 사 먹는 것이다. 국산품의 질만 높아진다면야...그리고 명절도 국산품으로 지내자. 설날부터.

이태리 대리석으로 무엇을 하고, 어느 나라제 침대를 놓고, 외국에서 채소까지 날라다 먹는다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귀를 후비고 싶어진다. 고위층의 한 마디 지시를 필요 이상으로 받아드려 부작용을 일으키는 꼬락서니를 보면 세금 아까운 생각도 든다.

이 기회에 우리 모두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해 보자. 지금이야말로 국민 누구나가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성실하게 사는 일이다. 자식도, 아버지도, 근로자도, 기업주도, 학생도, 정치인도, 그 어느 누구 하나 예외가 될 수 없다.

숲 정 이 산 채



사례⑤ 이리 소재 태창메리야스

가톨릭 노동자는

이렇게 탄압 받고 있다.

(가명) 양 영숙(로사)의 경우

1981년 11월 5일 입사하여 82년 3월 장인동 야학에 다니다 4월 회사에서 야학생들 성당에 다니지 말 것을 경고 받음. 6월 2일에 XXX차장과 면담시 J.O.C는 도시 산업선교회나 같고, 신부들이 정처에 관여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며 비방하고 그후 계속 성당 근처에서 XX원과, 책임자, 반장 등이 지키고 서서 성당에 나가는 사람을 체크함.

1983년 4월 임금 인상시 야학이나 성당에 다니거나, 노동사목 교육에 참석했던 13명은 모두 40원의 임금인상 밖에 되지 못해 대부분 퇴직하고, 동료들은 이러한 것을 보고 우리와 친하게 지내기를 꺼리고 성당에 나가는 것을 싫어함.

1983년 5월 15일 교구 체육대회시 회사 XXX매리와 X장이 와서 체크한 후 다음날 자리 이동이 있었고, 6월에는 부서이동, 7월에 월직에 복귀.

1983년 11월 작업 현장에 붙여진 "근무태도가 나쁜건 자랑이 아니다"라고 한 그래프에 자신의 막대 그래프를 본인이 올려 버렸다.

이후 자리이동, 부서이동, 사직권고를 하면서 당시 XXX매리가 본당 신부님에게 "개새끼 눈깔을 확 뽑아 버리겠다"며 갖은 욕설을 하고, 시말서를 쓰지안차 2주일 동안 X매리 앞에 하루종일 세워두고 그 후 X산부 사무실에 서있게 하면서 XXX매리가 백묵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곳에만 서있게 하며, 아침이면 올라와 큰 소리로 '갖은 떨시를 하였다'.

생산부 X부장과 면담시 "J.O.C를 아느냐"하기에 "회원이다"고 대답하자 "J.O.C는 나쁘다. 이걸 나라에서도 원하지 않는다. 없애면 많은 물의를 가져오니까 없애지 못하고 더 이상 회원이 늘지 않도록 조치만 할 뿐이다." 라고 할 때 그동안 회사에서 받은 모든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11월 말경 친구가 나와 친하게 지냈다는 이유로 부서 이동을 당했으며 2명은 사직권고를 받고 사직을 했다. 이와같이 XX자 X장 등은 "양 영숙과 친하게 지내지 마라"고 말을 하여 누구 하나 친하게 지내기를 꺼려하고 성당에 나가길 싫어하니 이러한 실정에서 전교는 어떻게 하며 우리의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는가.

현재는 화장실 옆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 당하여 혼자서 일을 하고 있다. 교묘한 방법으로 탄압을 하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들다.

□ 미혼모를 위한

마리아의 집

마리아의 집은 착한 목자 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주로 미혼모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단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소녀들이나 젊은 여성들을 위해서도 상담하며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주 시간표에 의하여 아침마다 교육받고 있으며 월요일과 목요일은 양재, 화요일은 민음 토론, 수요일은 성교육과 모자보건 그리고 자연가족 계획법, 금요일에는 성경공부를 하며 매일 오후에는 새마을 공장에서 나오는 수줍음 스웨터를 뜨는 시간을 갖으며 작은 용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또한 두달에 한번씩 성직자와 수도자가 한 팀을 이루어 피정을 실시하여 영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초 학습과목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에 머무는 기간은 각 개인들의 필요에 의해 결정됩니다.

미혼모의 경우에는 입양시킬 것인지 자신이 양육할 것인지 전적으로 그들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입양시키기를 원한다면 인가된 입양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양육할 경우에는 분만비와 양육비 등 소요되는 경비 모두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들이 머무는 동안 기숙비나 소요되는 경비를 이들 가족이 후원할 수 있다면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어렵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대신 이곳에 머무는 동안 여러가지 봉사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병원에 입원한 아가씨들을 간호해 주고 집안 일을 도와주는 일 등입니다.

들어오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집은 춘천행 버스편이나 기차편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기차편은 남춘천역에서 도보로 약 15분 정도 소요되고 버스편은 정거장에서 남춘천, 석사동행 시내버스편으로 약 5분 정도 걸리며 강원도 실내체육관 건너편 길가, 법원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소 : 200 강원도 춘천시 호자2동 397의1
전화 (0361) ③ 4617

*방송안내 : 이리 기독교 방송(1314KHz)

① 꿈과 음악 사이(매일 밤 11시15분~12시 일요일 제외)

밤의 명상(5분) - 성 태수 신부 담당

② CBS 대형전 메시지(5분)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3시 사이

• 성가들 들으며 프르는 83. 12월말로 끝났습니다. 새 프로에 앞으로도 많은 애청 바랍니다.

금·은·보석·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
금 보 장
장(방지거) 채(마리아)
☎ 6-4989(사구팔구)
최신 컴퓨터 조절기 특설

성심여와공업사
변색 벽돌·저벽돌(제조 판매)
공장전화 : 황산 174번
본사 : 이리시 장인동
전주사무실 : ☎ 2-0385
이리시 장인동 1가 259
대표 : 차계철(베드로)

* 정통하이패션 * 영 레이디를 위한
리하수 **제니**
2월 9일 전주 개점 사은품 증정
전주시 중앙동(이시계점 앞) ☎ 2-5375
* 남·녀 사원 모집(유경험자)
이 영 숙(마리아)

□ M. B. W 새 본당상(New Image of Parish) 코스 연수회

오늘의 교회는 수적으로 너무 비대해져 교회의 본질인 사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가 이 땅에 빛을 전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대에 적응하려 노력해왔습니다.

보다 나은 세계를 지향하는 M. B. W는 사림을 드러내는 이상적인 미래의 본당상을 제시해 봅니다. 가능하면 본당 신부님을 모시고 미래 우리의 본당을 설계하는데 함께 하시길 초대합니다.

일 시 : 27일 오후 1시30분~29일 참가비 : 2만5천원
인 원 : 접수순 40명 접 수 : 교구청 교육국

□ 장애인 모임 창립총회

교구 장애인 모임인 하나회는 19일 오후 2시 가톨릭 센타 교육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게 된다.

한편 교구에서는 지 정환 신부님을 교구 장애인 사목 전담으로 인사발령함으로써 보다 활성화된 모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부님 거쳐 : 이리시 영동동 268 성모병원 내 전화 ㉠ 3783

□ 체험담

M. B. W를 마치고

박 스테파노

영세한지 5년이 지난 저의 신앙생활은 일치나 사랑에 있어서 이론적이고 지식적이었지 실제적이고 체험적이지 못하였습니다. 미사에 참여해도 신부님의 주례에 이끌려 갈 뿐 같은 주님의 자녀로서 신심단체에서 활동을 해도 장년층과 종교적 체험에 대한 대화를 나누지 못하였으며 친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병정하여 진정한 형제애를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군입대를 한 달 남짓 앞둔 저의 생활은 무료함과 초조의 연속이었는데 주위의 권유와 생활의 변화를 위해 M. B. W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서먹서먹하던 분위기는 첫날 일정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 나눈 짧은 대화 속에서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가 나이 차이도 있고 사고의 차이도 있었지만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용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함에 있어서는 겉허하였으며 행동에 있어서는 남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저의 마음 속에 계시는 주님과 다른 형제들의 마음 속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공동체를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의 죄를 위해 당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써 사랑 자체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미사를 통해 우리 자신을 봉헌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일치에 대한 사랑으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마태오 22, 39) 하겠지만 그렇지 못하였으며 사랑할 용기가 적었던 저에게는 새로운 맛을 갖게 하였습니다.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사랑과 일치와 미사를 드릴 때 그동안의 생활을 고쳐고쳐 나서 마음 한 구석 빈방에 주님의 현존을 체험하며 소리없이 흐르는 눈물은 참회의 눈물, 감사의 눈물로 글이 아닌 진정 교우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3박 4일의 일정 동안 행동하는 공동체로써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마태오 5, 13~16)는 실천적 사랑과 일치를 배우게 되었으니 주여, 나약한 이 죄인을 인류 구원을 위한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
(덕진 본당)

요심이 (549) 김병오

여야에서 정치활동 피규제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웃기네

추가해금은 바를수록 좋으나...

유신헌법을 만든자와 그 밑에서 권력을 누린자와...

간접조치로 민주인사를 탄압한 자는 저의하여야 할 텐데...

조합원 제위 제 11 정기총회 소집공고

신협법 제21조 및 정관 제32조의 의거 당 조합 제11차 정기총회를 아래와같이 소집코자 공고 하오니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빠짐 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일시 : 1984년 2월 19일 (일요일) 오후 1시
 2. 장소 : 천주교 전주 중앙교회 (중앙성당)
 5. 회의 목적사항
 - ① 제 1부 : 기념식
 - ② 제 2부 : 정기총회
 - ③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조합 총무과 (☎9961-99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님께서는 당일 오후 12시 30분까지 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품, 행운권 증정함)
1984년 2월 일
전주 중앙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황 의 옥

귀가 어두우신 분에게 보청기를 권합니다

동남 의료과학 상사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바로서원 옆)
☎ 3-6900·72-6522
김 낙 균(요셉)

제11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정관 제32조에 의거 제11차 정기총회 소집을 공고함

일시 : 1984년 2월 25일(토) 오후 1시
장소 : 전북 예술회관(구 시청 옆) 4층 공연장

부의안건 : ①전차회의록 낭독 승인 ②83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 ③감사보고 승인 ④잉여금 처분(안) 승인 ⑤8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⑥차입금 최고 한도액 승인 ⑦임원보선 위임의 건 ⑧의사록 서명날인 인 선임의 건 ⑨기타사항 1984. 2.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이 중 두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휘클라레 여자 모임: 12일 오후 2시, 장소-중앙 성당
2. 새 교회법 연수회: 13일 오전 10시30분, 장소-센타, 대상-성직자, 수도자, 관심있는 분, 참가비-1인당 4천원
3. 사제 평의회: 14일 오전 10시
4. 교리교사 학습회: 16일 오후 1시~18일, 장소-센타, 참가비-1만원(도시본당), 9천원(5도시 외)
5. 공소회장 연수회: 17일 오후 2시~19일, 장소-센타, 대상-해당 공소회장 93명, 참가비-2천원(농촌지역 본당), 1만원(5도시 관할공소)
6. 센타 예비자반 개강: 17일 오후 7시, 장소-센타, 접수처-교구청 교육국(센타 내)
7. 꼬미씨움 월례회의: 19일 오후 2시, 장소-전동성당, 대상-각 꾸리아 간부 및 직속 Pr간부 전원
8. 성령쇄신 봉사자 모임: 23일 오후 7시30분, 장소-효자동(파티마) 성당
9. M.E 소개 모임: 25일 오후 3시, 장소-덕진 성당
10. 전북대 가톨릭 학생회 모임: 12일 오후 1시, 장소-센타 교육관, 대상-신자 모두

(중앙)

전화 ①711-2888
 주임 신부 안정현
 보좌 신부 김철민
 사도 회장 김인준

1. 중앙신협 정기총회: 19일<월> 오후 1시, 중앙성당
2. 복음사상 연구: 매주<금> 오후 7시30분, 중앙성당
강사-문정현 신부
3. 학습회 정기총회: 매주<수> 미사후 강당
4. 첫고백: 성탄탄 8개사(83년), 1월 28일 주일학교
연세자 첫고백 3시 미사후
5. 성모유치원 졸업식: 16일 10시
6. 주일학교 졸업식 및 중입식: 25일 어린이 미사후
7. 벽돌 봉헌: 7,337장 봉헌
8. 성전 신축헌금 수입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윤명기·차진순·이무순·주순일·주경자·오복례·
배정자·노영운(각 1만원), 최미화·이장노(각 5만
원), 홍영순·황호삼(각 5천원), 김오남·이석례(각
3만원), 김완순·정순덕·최오례(각 2만원)

□ 지난주 봉헌금: 880,801원 교무금: 487,500원

(노충동)

신부 ①0969 주임 신부 김웅태
수.사 ②7032 보좌 신부 나홍섭
사도 회장 이춘재

1. 꾸리아 월례회: 오늘 오후 2시, 간부 참석 바람
2. 신용조합 정기총회: 19일 12시30분
3. 건축설계 및 건축사 위원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중학생 졸업미사: 19일 오후 6시, 졸업생 참석 바람
5. 남성 제20차 꾸르실료 수강자: 사무실에 접수
6. 불우 이웃 형제에게 애덕을 실천합시다
<아파트 성당>
1. 이순영 이혁제 부부: M.E 주말강습회 마칩
2. 성모회 정기총회: 16일 오전 11시, 장소-성당
3. 성당 의사 신임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377,050원

(덕진)

신부(3)2182 주임 신부 김봉희
전화 수녀(72)1222 보좌 신부 정양현
사.사(72)6259 사도 회장 양상열

1. 청년연합회 정기총회: 공식미사 후(유치원)
L.M 꾸리아 회의-오후 2시(유치원)
2. 직장여성(어머니) 모임: 15일<수> 저녁 7시30분
3. 병자 방문봉사: 15일<수> 준비 바람, 사무실에 신청
4. 성모회 월례회: 18일<토> 오후 2시(유치원)
5. 금주 본당청소: 반석회·까리파스회(18일 오후 3시)
6. 다음주 모임: 반석회 정기총회-19일 공식미사 후,
덕진신용협동조합 정기총회-20일 오후 2시 성당
7. 신자들의 본문의 봉헌금(교무금)을 신임하세요
8. 유치원 원아모집에 협조 바랍니다(전화 72-1222)
9. 사도회 각 본파회의 소집 예고:
봉사본파-13일 저녁 7시30분(사도회의실)
재경본파-16일 저녁 7시30분(사도회의실)
교육본파-17일 저녁 7시30분(사도회의실)
10. 영화 상영: 26일 저녁 8시, 많은 관심과 참여있기를

□ 지난주 봉헌금: 576,395원 교무금: 380,000원

(복자)

전화 ①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김성원

1.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Pr. 간부 참석 바람
2.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복자신협 정기총회: 26일 오전 11시20분(성당)
4. 대학생회 모임: 매주<수> 오후 6시30분
회장-황선주, 부회장-윤종선·최영란
5. 주일학교 졸업식: 19일 어린이미사후
6. 수녀원 헌금: 한규석(5천원), 누계-7,436,800원

- 수녀원 벽시계 정동민 증 ※주방기구·침구·전자제품·
품·웅접셀·기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협조 바람
7. 금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천 건 ②김인식
차주전례: 해설-황만균, 독서-①조성호 ②정운주

□ 지난주 봉헌금: 114,595원 교무금: 574,480원

(서학동)

신부 ①8307번 주임 신부 김동준
수녀 ②2726번 사도 회장 김낙균

1. 꾸리아 모임: 오늘 오후 2시(회의실)
2. 울뜨레아 모임: 14일 저녁미사 후 7시30분
3. 성심회 월례회: 13일 오후 2시
4. 할머니 모임: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5. 마울리공소 미사: 다음주일(19일) 12시30분
6. 차주전례: 독서-①함문권 ②이병희

□ 지난주 봉헌금: 347,245원 교무금: 304,000원

(숲정이)

전화 ①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②9567 사도 회장 김수걸

1. 꾸리아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모회: 다음주(19일) 공식미사 후
3. 신용조합 정기총회: 다음주(19일) 공식미사후(강당)
4. 돈보스코회 임원: 회장-정진구(안드레아)
총무-손희주(비비안나), 서기-서수원(리노)
5. 요한회 새임원: 회장-박해근
부회장-김경주, 총무-조인국
6. 유치원 폐원: 김엘리사벳 수녀님은 휴양 가셨음
7. 금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①노재두 ②정송자
차주전례: 해설-홍성조, 독서-①강원모 ②김영희
기도-이동현·최윤희

□ 지난주 봉헌금: 205,730원 교무금: 413,200원

(전동)

신부 ①6208 주임 신부 박치삼
전화 사.사 ③2222 보좌 신부 김찬길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김병오

1. 자모회·장우회: 공식미사 후
2. 성마리아 꾸리아: 오후 2시
3. 성화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꼬미씨움: 다음주 오후 2시
5. 학생회 임원개편: 회장-김훈, 부회장-설재연
6. 예비자교리반 안내: 수.목-저녁미사 후(보좌신부),
금-오전 10시30분(김 수녀), 토-오후 3시30분(임
수녀), 일-공식미사 후(김 수녀)
7. 대건신협 정기총회: 25일 오후 1시, 예술회관 4층
8.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박종구, 독서-①최병래 ②이주영
공식미사: 해설-서정옥, 독서-①이덕수 ②김인찬
저녁미사: 해설-이애실, 독서-①최종만 ②김희진

◇ 1월말 결산: 총수입-7,172,313원, 총지출-7,090,589원, 잔액-81,724원

□ 지난주 봉헌금: 715,340원

(호자동)

신부 ①0915 주임 신부 박종신
전화 수녀 ②4804 사도 회장 활희상

1. 수요성서 강좌: ①창세기 1~2장 참조
2. 본당신부 사목방문: 15일-주공1단지·에그린아파트
3. 한협합니다: 김 오한 부제님
4. 레지오 연중전목회: 19일 오후 2시, 취사대회 있음
5. 수녀원과 유치원 전화번호: 2-4804
6. 축! 결혼: 18일<토> 11시 중앙성당
신랑-문세현(마리아), 신부-최정미(베로니카)

□ 지난주 봉헌금: 284,290원 교무금: 422,000원